

공장 가동률도 고용도 ‘반토막’...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

조선업 위기 ... 대불산단 입주업체·근로자들 하소연 3년 새 5천명 넘게 퇴직 실업급여 신청자 크게 늘어

대불국가산단이 위기다. 입주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용도 반토막 났다. 3년새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탓에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대불산단 고용 3년새 반토막=한국 산업단지공단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가동률은 54.4%에 그쳤다.

가동률은 2013년 6월 76.2%에서 2014년 77.5%, 2015년 82.8%로 올랐다가 2016년 78.1%, 올해 54.4%로 2년새 28.4%포인트 하락했다.

대불산단의 최대생산능력이 1858억원이지만, 실제 생산액은 1010억원에 그친 것이다. 이는 공장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생산설비를 절반가량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선업 침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불산단의 6월 고용현황은 4990명이다. 지난 2014년 6월 1만313명에 달했던 종업원 수가 3년 사이에 5323명 줄어 반토막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63명이나 됐다. 지난해 6월 523명에 비해 45.9% 급증했다.

임금 체불도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발표한 올해 8월 말까지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122억7200만원(3110명)에 달했다. 지난해 8월말 149억6100만원(4009명)보다는 줄었지만, 1인당 평균 394만5000원이 체불돼 전국 1인당 평균 체불액 409만7000원 대비 96.2%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남권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체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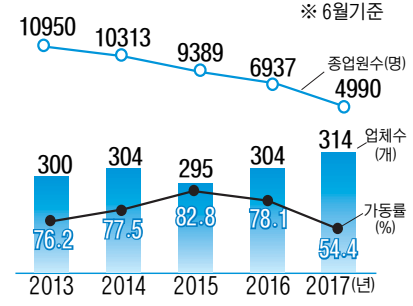
◇내수 부진 가장 힘들어=각종 지표에서도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발표된 지난 8월 전남 서남부지역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업황 실적과 전망 모두 41에 그쳤다. 전국 제조업 업황실적 78, 전망 83인 점을 고려하면 전남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업 중심의 전남 서남부 제조업 주요 항목 BSI도 답답하다. 매출은 전년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한 33, 생산 41(전월비-9), 신규수주 41(-13), 가동률 44(-7), 채산성 50(-7), 자금사정 44(-5)로 조사됐다. 모든 지수가 33~50에 머무르고, 하락폭도 크다.

서남권 제조업체 4곳 중 1곳은 경영예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28.4%)을 꼽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6.4%), 자금 부족(16.

■ 대불국가산단 가동률·고용현황 ※ 6월 기준



4%, 환율(9%), 인력난·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각 6%) 등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BSI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이 많고, 100 이하면 부정 응답이 많다. BSI 41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 조선업체 99%가 영세=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전남 조선업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전남 조선업의 특징을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진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매출 4조1721억원으로 전남 조선업체 총 매출액 6조7916억원의 61.4%를 차지했다. 업체 수로는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가 99%다. 중소조선사 75곳 중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을 넘는 업체는 단 3개사에 불과하다.

또 다른 특징은 조선업체가 전남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전남 조선업체 278개 중 88.5%인 246개 업체가 서남권에



가동 멈춘 대형 장비들 14일 수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불산단 입주 기업들의 대형 장비들이 작동을 멈춘 채 서 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kwangju.co.kr

몰려 있고, 이들이 전남 조선업 종사자의 94.8%, 출하액의 92.5%, 부가가치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조선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소형어선과 선박의장, 블록제작 등 단순 조립가공 제품이다. 특히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불산단 입주

업체 대부분인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주로 선박 블록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실적이 급감하면서 전남 조선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의 수주 실적은 27만3000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2015년 215만3000 CGT의 12.7%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수주 잔량은 274만 CGT로 향후 신규 수주가 없을 경우 2018년 이후에는 일감이 바닥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전봉헌기자 jb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후속 작업 ‘탄력’

차량시스템 선정 500억 사업비 절감...바퀴 논란도 끝내 설계·제작·시험·시운전·운영 등 추진 계획 속도낼 듯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이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차량시스템 공개입찰에서 경쟁을 유도해 500억여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뒀고, 고무와 철제 바퀴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고무 방식의 단점인 승차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남겼다.

14일 광주시는 “차량시스템 선정 이후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15일 동안 진행될 기술협상을 통해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 시운전, 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요청한 내용과 입찰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됐거나 추가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율 작업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 13일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검수 시설 포함) 조달구입에 응찰한 우진산전과 현대로템(주) 등 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9명이 사업실적, 기술력, 경영 상태, 신인도, 지원기술, 사후 관리, 가격 평가를 한 결과, 우진산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차량 구입비 1235억원, 검수시설 110억원 등이다. 구입 차량은 총 36편으로, 1편당 2량으로 운행되며, 1편당 수송가능 인원은 입석을 포함해 154명이다.

낙찰가격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공개경쟁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우진 측은 투찰가는 예정보다 대비 59%에 792억원으로 액면 그대로 따지면 55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차량바퀴 형식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됐

다. 고무바퀴는 진동과 소음이 적지만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쟁 모델인 철제바퀴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은 좋지만 초기비용이 많은 드는 단점이 있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오는 2019년 6월까지 차량 제작설계를 마친 뒤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량을 납품하게 된다. 차량과 신호 분리발주 방식에 따라 차량과 검수시설을 뺀 신호 등의 분야도 다음달 안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다. 토목과 궤도 분야 공사 실시계획은 최근 착수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무 바퀴의 단점인 승차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코크리트로 노면을 만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면으로 건설되고 지하 구간 중 28.2km는 4.3m 깊이, 9.5km는 1~1.5m 깊이로 각각 건설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 식품·필수의약품 등 미국·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 국제기구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만 이를 만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지원) 시기라든지 규모 또는 이러한 상황, 남북관계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 등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직과 신뢰로 쌓은 **그린장례문화 15년**,
예(禮)와 나눔으로 더욱 잘 모시겠습니다.

그린은 유가족님의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고귀하게 모시겠습니다.

- ▶ 저렴한 장례비용, 소문난 음식 맛
- ▶ 사통팔달 찾기 쉽고, 초대형 주차타워 완비
- ▶ 감동적인 의전과 5성급 호텔시설의 전문장례식장
- ▶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문화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메기치 못한 사고사로 그린을 이용하시면,
그린장례문화위원회 경조위로금과 특별 의전으로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행정처리까지 도와드립니다.

창립주 김영관 회장